

2020년 1월 1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합의 서명 후 매물 출회 금융, 반도체 하락 Vs. 헬스케어, 유틸리티 상승

미 증시 변화 요인: 무역합의 서명, बे이지북, 개별 기업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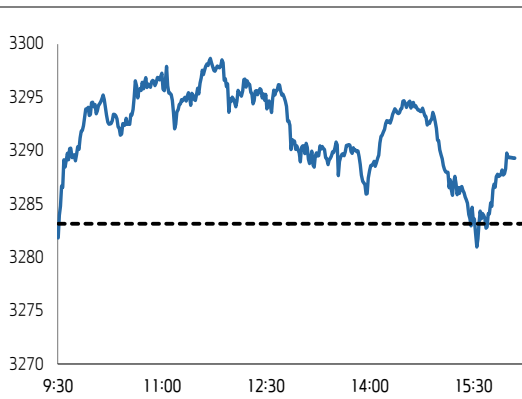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기대에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서명 이후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물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 한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재차 반등하기도 했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이어지며 결국 강보합 마감. 특히 금융과 반도체 업종이 부진한 반면,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다우 +0.31%, 나스닥 +0.08%, S&P500 +0.19%, 러셀 2000 +0.40%)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 서명이 있었음. 주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은 2,000 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한다고 발표(20년 767억 달러, 21년 1233억 달러). 특히 제조업 제품은 777억 달러, 에너지는 524억 달러, 농산물은 320억 달러, 서비스업도 379억 달러 규모로 추가 수입.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 조항도 발표 했으나, 이미 중국에서 법제화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 없음.

한편,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대로 지난해 9월 부과했던 1,200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는 15%에서 7.5%로 인하했으나, 2018년 부과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은 25% 관세를 유지했으며, 트럼프와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단계 합의 이후 모든 관세를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합의는 30일 후에 발효된다고 언급했고, 시진핑은 중국 기업들을 공평하게 대하기를 바란다고 발표

이번 합의가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식시장은 차익 매물을, 채권시장은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고, 상품시장도 약세를 보임. 외환시장도 달러 약세를 보였으며,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차익실현 또는 실망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임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30.98	-0.35	홍콩恒生	28,773.59	-0.39
KOSDAQ	679.16	+0.07	영국	7,642.80	+0.27
DOW	28,992.74	+0.18	독일	13,432.30	-0.18
NASDAQ	9,243.26	-0.09	프랑스	6,032.61	-0.14
S&P 500	3,285.46	+0.07	스페인	9,511.70	-0.17
상하이종합	3,090.04	-0.54	그리스	928.66	+0.54
일본	23,916.58	-0.45	이탈리아	23,763.86	-0.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헬스케어 상승 Vs. 반도체, 금융섹터, 가스생산업종 부진

유나이티드헬스(+2.83%)는 양호한 실적 발표와 함께 2020년 대선에서 미국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했다. CVS헬스(+1.95%), 휴마나(+1.87%) 등도 동반 상승했다. 퀄컴(-0.98%)은 5G 스마트폰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5G칩 가격을 크게 인하한다고 발표하자 향후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더불어 쿼보(-2.94%), 스카이웍(-2.37%), 마이크론(-2.35%) 등도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9% 하락했다. 타겟(-6.59%)은 부진한 연말 쇼핑시즌 매출 여파로 급락했다. 월마크(-0.77%), 메이시스(-2.41%)도 동반 하락했다.

발레로 에너지(-3.30%), 마라톤 페트롬(-2.86%) 등 천연가스 관련 업종은 사우디가 천연가스 증산을 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천연가스가 2% 넘게 하락하자 부진했다. 솔룸베르거(-3.06%) 등 원유 서비스 업종과 코노코필립스(-0.21%) 등 세일 오일 업종은 국제유가 부진으로 하락했다. 다만, 중국이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관련 업종의 하락은 제한되었다. BOA(-1.84%)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수익 성장이 JP모건에 비해 약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매물이 출회되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역풍을 쳤다는 점이 부각되자 JP모건(-1.50%), 씨티그룹(-0.82%) 등 금융주가 크게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17%	대형 가치주 ETF(IVE)	+0.17%
에너지섹터 ETF(OIH)	-2.16%	중형 가치주 ETF(IWS)	+0.14%
소매업체 ETF(XRT)	-0.66%	소형 가치주 ETF(IWN)	+0.19%
금융섹터 ETF(XLF)	-0.55%	대형 성장주 ETF(VUG)	+0.29%
기술섹터 ETF(XLK)	+0.12%	중형 성장주 ETF(IWP)	+0.3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6%	소형 성장주 ETF(IWO)	+0.70%
인터넷업체 ETF(FDN)	+0.41%	배당주 ETF(DVY)	-0.14%
리츠업체 ETF(XLRE)	+0.7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4%
주택건설업체 ETF(XHB)	+1.2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2%
바이오섹터 ETF(IBB)	+0.51%	미국 국채 ETF(IEF)	+0.25%
헬스케어 ETF(XLV)	+0.86%	하이일드 ETF(JNK)	+0.05%
곡물 ETF(DBA)	+0.24%	물가연동채 ETF(TIP)	+0.08%
반도체 ETF(SMH)	-1.48%	Long/short ETF(BTAL)	+0.6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1.21	-0.67%	-0.47%	+0.80%
소재	379.93	+0.64%	+1.52%	+0.16%
산업재	704.75	+0.09%	+0.71%	+2.73%
경기소비재	993.95	-0.26%	-0.04%	+2.73%
필수소비재	652.87	+0.65%	+1.97%	+1.46%
헬스케어	1,210.62	+0.85%	+1.56%	+2.92%
금융	509.14	-0.55%	-0.08%	-0.10%
IT	1,670.26	+0.07%	+1.76%	+5.68%
커뮤니케이션	188.15	+0.34%	+0.92%	+4.46%
유틸리티	334.52	+1.41%	+3.14%	+3.34%
부동산	243.44	+0.77%	+2.54%	+4.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과정 이어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1% MSCI 신흥 지수 ETF 도 0.78%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15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0.35pt 하락한 299.8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7.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 서명이 있었다. 그동안 이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폭을 확대해왔으나, 관련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여파로 미 증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도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퀄컴의 5G 칩 가격 인하 등으로 반도체 업종이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9% 하락한 점도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은 조정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미 증시에서도 미-중 합의 서명 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베이지북 발표 후 재차 반등을 하는 등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물가지표 부진

12 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해 예상(mom +0.2%)를 하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 상승해 예상(mom +0.2%)를 하회했다.

1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3.5)이나 예상(3.6)을 상회한 4.8 로 발표되었다. 특히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신규수주(1.7→6.6)가 크게 개선된 반면, 고용지수(10.4→9.0), 재고지수(2.2→-0.7) 등은 부진했다. 대체로 1 차 무역협상 이후 제한적인 낙관론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EIA 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1,300 만 배럴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OPEC 과 미국의 점유율 싸움이 본격화 되며 향후 공급 증가 우려를 자극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천연가스는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이 보도되자 2% 넘게 급락했다.

달러화는 중국과의 무역합의 서명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중국이 2 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고 2,500 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등 대체로 실망감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생산자물가지수 부진도 달러 약세 요인이었다. 한편, 역외 위안화의 경우는 달러 약세와 미국과의 무역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 출발 했다.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협상 서명이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유지 되었다. 특히 2018 년 부과된 2,500 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등 실망스러운 합의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가 완만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측면이 있다고 발표했다.

금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미-중 무역합의 서명에 대한 실망 속 달러 약세 불구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3% 철근은 0.31%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7.81	-0.72	-3.02	Dollar Index	97.234	-0.14	-0.07
브렌트유	64.00	-0.76	-2.20	EUR/USD	1.1149	+0.19	+0.40
금	1,554.00	+0.61	-0.40	USD/JPY	109.91	-0.07	+0.72
은	17.988	+1.39	-0.99	GBP/USD	1.3031	+0.09	-0.50
알루미늄	1,801.00	-0.44	+0.03	USD/CHF	0.964	-0.35	-1.02
전기동	6,287.00	-0.24	+1.76	AUD/USD	0.6903	+0.01	+0.54
아연	2,385.00	+0.48	-0.75	USD/CAD	1.3047	-0.11	+0.06
옥수수	387.50	-0.39	+0.85	USD/BRL	4.1831	+1.25	+2.94
밀	573.25	+0.84	+3.71	USD/CNH	6.8907	+0.02	-0.66
대두	928.75	-1.43	-1.95	USD/KRW	1157.00	+0.08	-1.18
커피	114.30	-0.52	-4.07	USD/KRW NDF1M	1157.65	+0.07	-0.3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83	-2.79	-9.08	스페인	0.450	-2.60	+2.00
한국	1.696	-1.90	+6.10	포르투갈	0.498	+7.70	+10.80
일본	0.010	-0.60	+1.50	그리스	1.382	-0.50	-0.10
독일	-0.200	-2.90	+0.70	이탈리아	1.399	+0.60	-1.30